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 『삼국유사』 권 제2 「처용가」 중에서-

- ① ㉠ : 弗矩内 ② ㉡ : 入
③ ㉢ : 可 ④ ㉣ : 羅

정답 ②

② ㉡의 '입(入)'은 훈차, ① ㉠의 '불구내(弗矩內)', ③ ㉢의 '가(可)', ④ ㉣의 '라(羅)'는 음차이다. 향찰에서 훈독 문자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음독 문자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에 주로 사용되었다.

(가) 赫居世王(혁거세왕) :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는 이름은 盖郷言也(개향언야) : 필경 향언(우리말)일 것이다.
或作不矩内王(혹작불구내왕) : 혹은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니 言光明理世也(언광명리세야) :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현대어 풀이 : '혁거세왕'은 우리 토박이말일 것이다. 혹, '불구내왕'(弗矩内王)이라고도 하니,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ㄹ 정리하기

- ①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음차'와 '훈차'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함.
② 음차를 해서 쓴 한자이든 훈차를 해서 쓴 한자이든 당시 사람들은 같은 발음으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함

***다음 표에서 붉은 글씨만 읽음**

赫居世				弗矩内			
	赫	居	世		弗	矩	内
한자 훈	붉을	살	누리/위	한자 훈	아닐	범	안
한자 음	혁	거	세	한자 음	불	구	내

(나)

구절	東	京	明	期	月	良	
한자 훈	동녘	서울	밝을	기약할	달	어질	
한자 음	동	경	명	기	월	량/애	
해석	식물 불기 득래						

구절	夜	入	伊	遊	行	如	何
한자 훈	밤	들	저	놀	다닐	갈을	옳을
한자 음	야	입	이	유	행	여/다	가
해석	밤 드리 노니다가						

구절	入	良	沙	寢	矣	見	昆
한자 훈	들	어질	모래	잠잘	어조사	볼	만
한자 음	입	량/어	사	침	의	견	곤
해석	드러사(들어와) 자리 보곤						

구절	脚	烏	伊	四	是	良	羅
한자 훈	다리	까마귀	저	넉	바를	어질	그물
한자 음	각	오	이	사	시	량/어	라
해석	가르리(다리가) 네히어라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라. 종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마. 'ㄲ', 'ㄸ', 'ㅃ'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마

정답 ④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5개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삼재(三才; 天, 地, 人)를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조음 기관 상형하여 창제한 것은 초성자이다.
마. 'ㄲ', 'ㄸ', 'ㅃ'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각자병서라고 한다.
합용병서(合用並書)는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만든 글자로서 'ㄲ', 'ㄸ', 'ㄹ', 'ㄴ', 'ㄷ', 'ㄹ', 'ㄴ', 'ㄷ', 'ㄹ' 등이 있다.

3.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 부엌 [부억]
② 축약 : 붙여 [부쳐]
③ 탈락 : 담가도 [담가도]
④ 첨가 : 피어도 [피여도]

정답 ② 음운의 변동

- ① 교체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부엌[부억]'의 경우 받침 'ㄱ'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다.
② '붙여[부쳐]'는 구개음화 현상으로서,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다.
③ '담그+아도=담가도[담가도]'는 어간의-'가' 탈락하였다.
④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어미의 첫소리도 모음일 경우, 모음 연쇄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를 피하기 위해 반모음[이]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피어'의 경우 [피어]로 발음하지만 [피여]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를 반모음 첨가라 한다.

***반모음 'ㅣ'가 첨가되는 현상.**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어미의 첫소리도 모음일 경우, 모음 연쇄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를 피하기 위해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되어'의 경우 '[되여]'라 발음하기도 하지만, [되여]라 발음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를 반모음 첨가라 한다.

되여[되여/되여], 피여[피여/피여], 기여[기여/기여], 아니오[아니오/아니오], 책이오[책이오/책이오], 미시오[미시오/미시오], 오십시오[오십시오/오십시오]

위의 예들은 모두 반모음 'ㅣ'가 첨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 둘 것은 표기상으로는 '되여, 피여' 등만 허용되며, 발음상으로는 '[되여, 피여]' 등을 원칙으로 하되, '[되여, 피여]' 등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4.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언어의 자의성 :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 언어의 역사성 :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 언어의 사회성 :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언어의 분절성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정답 ④

④는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문법 단위 내 또는 문법 단위 간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언어의 특성이다. 우리가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언어에는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해야지, “나는 학교한테 간다.”나 “학교는 간다 나를.”과 같은 것은 언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5.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累卵之()
口()腹劍
鯨戰()死
南()一夢

- 稅, 蜜, 蝦, 稼
- 勢, 密, 瑕, 柯
- 勢, 蜜, 蝦, 柯
- 稅, 密, 瑕, 稼

정답 ③

◆ **누란지세(累卵之勢)** :累 여러 누/卵 알 란/之 갈 지/勢 형세 세)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 위여누란(危如累卵), 누란지위(累卵之危), 누기(累基) : 바둑 돌을 쌓아 올린 듯하다. 여러박빙(如履薄氷) :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백척간두(百尺竿頭) : 백 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매달려 있다. 풍전등화(風前燈火) : 바람 앞의 등불. 초미지급(焦眉之急) : 눈썹에 불이 붙음. 일각의 여유도 둘 사이 없이 다급함.

[속] 강가에 나간 아이와 같다. 눈먼 말 타고 벼랑가기다. 봄 얼음 건너 가는 것 같다.

◆ **구밀복검(口蜜腹劍)** :口 입 구/蜜 꿀 밀/腹 배 복/劍 칼 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유] 소중유검(笑中有劍), 소리장도(笑裏藏刀), 소면호(笑面虎), 면중복배(面從腹背), 경이원지(敬而遠之) 양두구육(羊頭狗肉), 표리부동(表裏不同). [속] 등치고 간 내먹는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웃고 사람 친다.

◆ **경전하사(鯨戰蝦死)** :鯨 고래 경/戰 싸움 전/蝦 새우 하/死 죽을 사)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속담의 한역으로, 강자끼리 싸우는 틈에 끼여 약자가 아무런 상관없이 화(禍)를 입는다는 말.



◆ **남가일몽(南柯一夢)** : 南 남녘 남/柯 가지 가/一 한 일/夢 꿈 몽) 남쪽 가지에서의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한때의 헛된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속]인생은 풀 끝 이슬. 만사가 모두 꿈 같다. 인생은 뿌리 없는 평초(萍草)

[유] 괴몽(槐夢), 괴안몽(槐安夢), 남가몽(南柯夢), 남가지몽(南柯之夢), 일장춘몽(一場春夢)

6.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것은?

- 맑다 [말따]
- 훅과 [흑과]
- 넓다 [널따]
- 밟다 [밥 : 따]

정답 ①

겹받침 ‘ㄹ, ㄼ, ㄽ’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①의 ‘맑다’는 [말따]로, ③의 ‘넓다’는 [널따]로 발음한다.

② ‘ㄹ’이 용언의 어간의 끝음으로 오는 경우 어말의 ‘ㄹ’이 ‘ㄱ’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그러나 체언+조사인 ‘훅과’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④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밟다’는 뒤에 자음이 올 때 ‘ㄹ’ 대신 ‘ㅂ’이 발음된다. 밟고[밥꼬], 밟지[밥찌]가 된다.

7.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정답 ④ 올바른 어법

④는 아버지가 나와 책 중에서 신문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올바른 문장이다.

① 중의적 표현이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

→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② 접속 조사 ‘와’, ‘과’에 의한 중의성

내가 ‘반장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의미와 내가 ‘반장도 찾아다니고 선생님도 찾아다녔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된다.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나는 반장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모두 찾아다녔다.

③ 수식 관계가 모호한 문장이다.

‘수많은’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경우와 ‘노력’을 수식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고, 민 노인의 관창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님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났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빛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났지, 넓은 마당에서는 북을 쳐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북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항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판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정답 ④ 현대 소설- 내용의 이해

손자 ‘성규’가 봉산 탈춤 발표회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은 제시되지 않았다.

① 민 노인의 손자 ‘성규’는 애들한테도,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고, 자신의 체면을 봐서 북장단을 맡아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② 민 노인의 아들(민대찬)은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며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민 노인이 북을 치는 것을 싫어한다.

③ 앞부분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전: 최일남, ‘흐르는 북’

1. 해제 : 이 작품은 1980년대 서울 중산층 가족의 삶을 소재로 하여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교체 양상을 보여 주며,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족사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세대 간의 대립은 역사적인 의미로 재생산된다. 민대찬의 출세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성향과 대립하는 성규의 데모는 현실 변혁적인 삶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로 변화하듯이, 부정적 현실에서 속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세대로의 발전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가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과 이상, 안정과 변혁의 갈등을 세대 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

2. 주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모색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의 추구.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① 이 무기는 辭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②

① 사정(辭呈)→ 사정(射程: 射 쏘 사/程 한도 정)

③ 답사(答辭)→ 답사(踏査: 踏 밟을 답/査 조사할 사)

④ 유감(有感)→ 유감(遺憾: 遺 남길 유/憾 섭섭할 감)

① 사정(辭呈)→ 사정(射程)

• 사정(辭 말솜 사/로 드릴 정)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두거나 말미를 받기 위하여 청원서를 내던 일).

• 사정(射程: 射 쏘 사/程 한도 정) 사정거리(탄알, 포탄, 미사일 따위가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 보급(補給: 補 도울 보/給 줄 급) 물자나 자금 따위를 계속해서 대어 줌.

• 시급(時急: 時 때 시/急 급할 급) 시각을 다룰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하다.

②

• 조작(造作: 造 지을 조/作 지을 작)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지어서 만듦.

• 발각(發覺: 發 필 발/覺 깨달을 각) 숨기던 것이 드러남.

• 남용(濫用: 濫 넘칠 남/用 쓸 용)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③

• 자료(資料: 資 재물 자/料 헤아릴 료)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만들거나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물자나 재료.

• 사전(事典: 事 일 사/典 법 전)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각각에 해설을 붙인 책.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답사(答辭)→ 답사(踏査)

답사(答辭: 答 대답 답/辭 말솜 사) ㉠회답을 함. 또는 그런 말. ㉡식장에서 환영사나 환송사 따위에 답함. 또는 그런 말.

답사(踏査: 踏 밟을 답/査 조사할 사)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④

• 사건(事件: 事 일 사/件 물건 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 유감(有感)→ 유감(遺憾)

유감(有感: 有 있을 유/感 느낄 감) 느끼는 바가 있음.

유감(遺憾: 遺 남길 유/憾 섭섭할 감)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 단정(斷定: 斷 끊을 단/定 정할 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zigzag 지그재그 | ㉡ vision 비전 |
| ㉢ leadership 리더쉽 | ㉣ yellow 옐로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

㉠ 지그재그(zigzag) : 어말의 유성 자음 g는 원칙적으로 ‘그’로 적는다.

㉡ 비전→ 비전(vision) : 외래어 표기에서 ‘ㅈ, ㅊ’ 다음에는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다.

㉢ 리더쉽→ 리더십(leadership) ‘-ship’을 지니고 있는 ‘-십’으로 표기한다.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으로 순화.

㉣ 옐로(yellow) : [ou] 소리는 ‘오우’가 아니라 ‘오’로 적는다. [ou]를 ‘오’로 적는 것은 ‘오우’로 적는 것보다 영어의 본래 발음에 가깝기 때문이다.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쭙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 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

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정답 ④ 글쓰기의 계획

글쓴이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실수한 일은 드러나지 않았다.

① 네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② 글쓴이는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글쓴이는 선생님께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① 가멸다 ② 슬겁다
③ 몽따다 ④ 공삭다

정답 ③ 우리말 어휘

몽따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예 그는 사실을 알면서도 몽따고 되물었다.

① 가멸다 :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② 슬겁다 :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④ 공삭다 : ㉠옷 따위가 오래되어서 옷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 ㉡젓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푹 삭다. ㉢풀, 나뭇가지 따위가 썩거나 오래되어 푸슬푸슬해지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② 높임 표현

<보기>의 문장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객체높임법이다.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하지 않은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와 같은 객체 높임 서술어를 활용한다.

- ①과 ③은 상대높임법에 대한 설명이다.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되는데, 크게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주체높임법에 대한 설명이다.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서술어에 넣는 것이다. 그 외에 ‘께서’라는 조사를 주체에 붙이거나 ‘-님’이라는 높임 접미사를 붙이거나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를 높일 수도 있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귀야 존 뒤를 디딤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뒤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예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가) 작자 미상, ‘정음사’

- 1) 갈래 : 3장 6구의 고대시가
- 2) 작자 : 어느 행상인의 처
- 3) 주제 :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
- 4) 의의 :
 - ①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
 - ②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
 - ③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

(나) 작자 미상, ‘청산별곡’

- 1) 갈래 : 고려속요, 고려가요, 장가
- 2) 형식 : 전 8연의 분장체. 매 연 4구 3·3·2조의 3음보
- 3) 표현 : ㄹ 음의 반복과 ㅁ 음의 어울림에서 빚어내는 음악성이 대비되었고, 반복법과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 4) 주제 : 삶의 고뇌와 비애. 현실도피.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고전시가의 특징

- ④ (가)에 감정이입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나)에도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는 없다.
- ① (가)와 (나)는 모두 후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는 현실의 고통을 피하여 ‘바다’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이며,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시가이다. (나)는 고려속요로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글로 기록되었다.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리곰 :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점그를세라 : ‘저울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 의리도 괴리도 업이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④ ㉠ 드로라 :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해당 구절의 해석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이다. 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것이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정답 ③ 띄어쓰기

• 어릴 망정 → 어릴망정 : ‘-ㄹ(을)망정’은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①

• 떠난 지(○) :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그녀뿐이다(○) : 체언이나 부사어 뒤의 ‘뿐’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 법대로(○) : 체언 뒤에 ‘대로’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찾아보아라(○) : ‘찾아보다’는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다.

③

• 어릴 망정 → 어릴망정 : ‘-ㄹ(을)망정’은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 애쓴 만큼(○) : 관형사형 어미 뒤에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깨뜨려 버렸다(○) : 본용언 ‘깨뜨려’와 보조용언 ‘버렸다’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혼나기는커녕(○) : ‘-는커녕’은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정답 ④ 문장의 구성

④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이 문장의 ‘-는데’는 연결어미이다.

①, ②, ③은 안은문장이다.

① 관형절(-는)을 안은 겹문장이다.

② 명사절(-기)을 안은 겹문장이다.

③ 명사절(-음)을 안은 겹문장이다.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 ② 서술어의 자릿수

②의 ‘주었다’는 세 자릿수 서술어, 나머지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①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그는)와 보어(선생님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② ‘주었다’는 주어(민수는)와 부사어(후배들에게), 목적어(책을)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이다.

③ ‘먹었다’는 주어(철수는)와 목적어(라면을)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④ ‘읽는다’는 주어(학생들이)와 목적어(책을)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 | | | | |
|-------|-----|-------|-----|
| ㉠ | ㉡ | ㉠ | ㉡ |
| ① 컷병 | 컷밥 | ② 냇가 | 뱃길 |
| ③ 자릿세 | 전셋집 | ④ 아랫집 | 아랫방 |

정답 ④ 한글맞춤법

㉠: 고랫재, 컷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댕가지, 뒗갈망, 땃돌, 머릿기름, 모깃불, 뭇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싷돌, 선짓국, 췌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찻집, 찻바퀴, 킷값, 핏대, 햏벌, 햏바늘

㉡: 컷병, 머릿방, 뱃병, 뱃독, 사쟈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촛국, 컷병, 햏줄, 햏세, 햏기, 햏수, 햏가루, 햏배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경찰공무원 1차 국어 해설

2016. 03.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 컷병(-病)[귀병/권병]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컷뺏[귀뺏/권뺏]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②
- 냇가[내:까/냇:까]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뺏길[배길/뺏길]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③
- 자릿세(---貰)[자리세/자릴세]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전셋집(傳貰-)[전세집/전선풀]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④
- 아랫집[아래집/아래집]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아랫방(---房)[아래방/아래방]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속] 생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격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자가사리 용을 건드린다.

㉔ 득룡망축(得隴望蜀) : 得 얻음 득/隴 고개 이름 룡/望 바랄 망/蜀 나라 이름 축) 농(隴)나라를 얻고 나니 축(觸)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동] 지강급미(砥糠及米) : 겨를 할다가 쌀을 먹는다. 차청차규(借廳借闈) : 마루를 빌리면 안방을 빌리고자 한다.)

① ㉓ 아는 것이 병이다. : 정확하지 못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같은 속담]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

② ㉔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없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 다 갖추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㉔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말로,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

20. 다음 ㉓~㉔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㉓ 識字憂患
㉔ 角者無齒
㉕ 螳螂拒轍
㉖ 得隴望蜀

- ① ㉓ 아는 것이 병이다.
② ㉔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③ ㉕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④ ㉖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정답 ④ 한자성어와 속담.

㉕의 득룡망축(得隴望蜀)은 농(隴)나라를 얻고 나니 축(觸)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④의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속담은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말로,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이다.

㉓ 식자우환(識字憂患) : 識 알 식/字 글자 자/憂 근심 우/患 근심 환)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㉓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됨. ㉔ 도리를 알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불리하게 되었음을 이룸. ㉕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때를 이룸.

㉔ 각자무치(角者無齒) : 角 뿔 각/者 농 자/無 없을 무/齒 이 치) 뿔이 있는 농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복을 겸하지는 못함.

㉕ 당랑거철(螳螂拒轍) : 螳 사마귀 당/螂 사마귀 랑/拒 막을 거/轍 바퀴 자국 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

[동] 당랑지부(螳螂之斧), 당비당거(螳臂當車)